

# 東歐와 아프리카文學에의 접근

## 「유네스코 대표작선집」의 목록(上)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유네스코의 국제적 주요 사업 중에 ‘문화의 미래’라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문화와 문화유산, 창작과 창작행위, 그리고 문화적 주체성과 상호관계의 개념>을 포괄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 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 작업이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다.

우선 여기에 거론하게 되는 항목은 이러한 지향 아래 이루어지는 통칭 「유네스코 대표작선집」 간행작업이다.

이 대표작 선집의 취지는 이렇게 표현된다. “시인과 작가의 본질적인 역할, 즉 의사를 소통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 더욱 가까워지도록 만든다고 하는 이 역할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유네스코 대표작선집」은 시인과 작가의 작품이 한데 모이는 초점이며, 이 작품들을 번역한 뒤 가능한 넓은 독자층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도 문학의 번역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좀더 침착하게 이해할 수 있다.

### 多國語에 의한 번역작업

그러나 이 선집간행작업은 아직은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영어와 불어로 번역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의 걸작을 참모로 세심하게 평가하여 옮겨주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언어별의 일차적 목표는 영어와 불어권 이외의 나라들 작품을 영어와 불어로 먼저 보도록 한다는데 두어져 왔다. 194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영·불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수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산스크리트語의 「우파니샤드」는 불어보다는 (1971) 독일어로(1965) 먼저 번역됐다. 가와 바다 야스나리의 「雪國」은 인도네시아어로(1972), 우르두어로 쓴 파키스탄의 시인 아흐메드 파이즈의 시선집은 헝가리어로(1979),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의 헌법」은 아랍어로(1967) 번역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에까지 이루어진 문학선집의 量은 65개語 900여작품집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다국어 연계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선집만의 특성도 나타난다. 이 선집은 어느 한곳에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형식을 가질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일련번호같은 것도

갖지 않는다. 원래 간행의 작업도 다단계적이다. 우선 작품의 선정은 自國의 유네스코위원회가 먼저 한다. 객관적으로 공인된 자문기구들의 의견을 거쳐야 하고, 유네스코본부의 기능에서 최종적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번역된 언어의 나라에서 또 누가 출판을 하느냐도 개별적으로 선정한다. 앞에 말한 「우파니샤드」의 불어판은 갈리마르가, 파이즈의 시집은 세제르社가 간행했다(1979).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 사업의 포괄적 파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적 총목록은 오늘에 있어 외국의 문학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정밀한 기준으로 쓰여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에게 낯익은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자. 그것이 어떤 작품들로 선정되어 어느 국어로 이전되는가를 들여다 본다면 이 선집의 세심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프랑스의 까뮈작품 「페스트」는 1985년 인도네시아어로 간행됐다. 앙리 베르그송의 논문 「창조적 신화」는 1981년 아랍어로 번역됐다. 그리스 시인 세페리스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1963년이었는데, 「유네스코 선집」에 선택되어 영어로 번역된 것은 1960년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이븐 안드리치치는 1961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나 1977년 와서야 「안드리치 선집」으로 프랑스에서 간행됐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있거라」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것은 1975년이다.

이러한 평가와 轉移의 시간差的 구조는, 각 민족간의 주체성을 전제로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역할로서의 문학이전을 보다 여러 요소에서 평가와 재평가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알 수 있는 글에 이런 것이 있다.

“이 선집은 문화적 주체성 및 문화간의 관계의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전세계 사람들이 과거 및 현재의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 자기네의 전통과 신념과 가치와 세계 속의 자기네 존재를 좀더 명확히 확인해주고 세계무대에서 자기네 위치를 강화해주는 어떤 것을 생활과 관습의 배후에서 찾아내 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현재를 배척하고 과거를 열망하는 것, 그리고 바깥세계가

### 「유네스코 대표작선집」은

#### 시인과 작가의 작품이

#### 한데 모이는 초점이며,

#### 이 작품들을 번역해서

#### 가능한 넓은 독자층에게

####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 선집은 문화적 주체성 및

#### 문화간의 관계의 강화를 위한

#### 유네스코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제공해야 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변화하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에서 발생하는 풍요로움을 두팔벌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사회가 각기 그 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충돌 속에서는 결실을 볼 수 없다. 각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이 대등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문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접촉만이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 작품목록 선정의 기준

우리는 이러한 論旨에 물론 낮이지 않다. 특별한 생각 없이 번역을 하고 그것도 무조건 선택이라는 태도에 있을 뿐이다. 누차 지적해 두었지만 일본의 선택목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대중적 베스트셀러쯤을 경쟁적으로 수용하거나 할 뿐이다.

유네스코 대표작 선집사업의 理事인 에두아르 모니크는 이 선정의 기준을 이렇게 말한다.

“어떤 문학은 오랜 세월에 걸친 전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고작해야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을 뿐이다. 세계각국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에 국한한다고는 해도, 다양한 제목의 작품들이 양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이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선별의 기준이 되는 여러 원칙을 채택

하고 엄격하게 그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약간의 자유재량의 여지도 허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번역된 작품들일 때 다시 번역하지는 않으려 해왔다. 작품이 많지 않고 지명도가 낮은 신진 현대작가들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고려하지 않아 왔다. 그것은 질과 내용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기준에 적합한 작품의 ‘대표적 견본’을 제공한다는 데 유네스코 선집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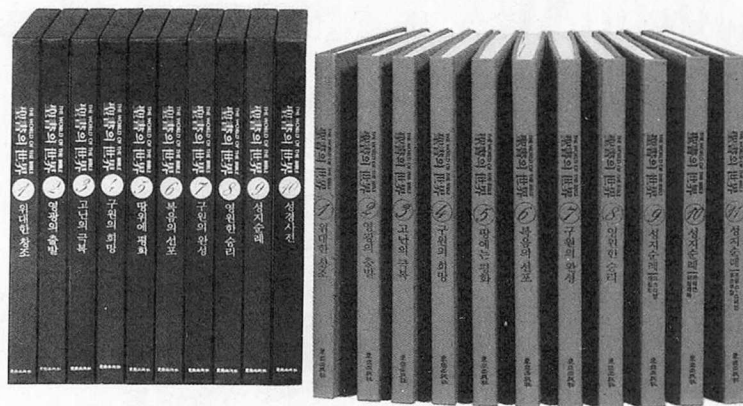
이 ‘국제적, 다수언어적, 다수문화적’인 「유네스코 대표작선집」을, 그 의미가 높다고 해서 여기에 전부 소개할 만한 지면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단지 문학을 비롯한 번역으로서의 문화移轉이나 수용이 우리네에서처럼 그렇게 무심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의 지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몇 언어권의 작품들은 이 목록에 의지해서나마 선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2회에 걸쳐 그 일부를 소개해두려 한다. 우선 이번에는 근자의 유행적 관심사인 東유럽문학과 아프리카문학의 목록을 옮겨 본다.

### 「유네스코 대표작선집」의 東歐문학

- ▲산도르 페토프(헝가리) 「시집」
- ▲미하일 에미네스쿠(루마니아) 「최후의 낭만주의자:미하일 에미네스쿠」
- ▲타라스 셰브첸코(소련 우크라이나) 「詩選集」 「화가」 「일기발췌」
- ▲살롬 알레이헴(이디시語·테베 테어 밀치거) 「젓짜기 일꾼 테비어」(「지붕위의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작품)
- ▲이븐 안드리치(유고슬라비아) 「비지르의 코끼리」(보스니아와 기타지역 이야기)
- ▲「불가리아 단편집」 불가리아 유네스코위원회 선정 번역(프랑세 레위니社版)
- ▲「19, 20세기 헝가리 단편집」 헝가리 유네스코위원회 번역(프랑스 세제르社版)
- ▲「루마니아 단편집」 「루마니아 산문전집」(프랑스 세제르社版)
- ▲「슬로베니아 단편집」(유고슬라비아)(프랑스 세제르社版)

# 사진으로 엮은 '聖書의 세계'

## 총 3800여점의 사진자료... 성직자 등 필진도 대거 참여



가톨릭 선교 200년, 개신교 선교 100년을 맞아 세계각국의 성지와 신앙발원지를 생생한 사진자료로 엮은 「성서의 세계」(전24권, 동아출판사)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까지 글로만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성서의 세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현장체험하듯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기획 아래 5년간의 편집제작 끝에, 개신교편 10권과 가톨릭편 14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전집물이 탄생하게 됐다.

기획에서 출간까지 9억원의 편집비 등 개발비만 총20억원이 투자된 「성서의 세계」에는 사진자료만도 3800여점이 수록됐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스 등 20개국 120지역을 직접 다니며 성지와 신앙유적지를 촬영했으며, 루브르, 대영박물관 등 17개 유명 박물관의 협조로 받은 聖書, 조각물 등 화보 550여점을 실어 신구약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또한 각계의 성직자와 신학자 등 245명이 필진으로 참여,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해설했으며, '성서해설'과 '신앙에세이'를 담아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완간된 개신교편의 10권은 크게 구약성서편 4권, 신약성서편 4권 그리고 성지순례편과 사전이 각각 1권으로 구성돼 있다. 구약성서를 무대로 한1권부터 4권까지는 천지창조와 출애굽기, 다윗과 솔로몬왕의 황금기를 거쳐 남북의 분열과 쇠망의 비극사를 펼쳐보인다. 신약성서를 무대로 하는 5권부터 8권까지는 신약성경의 첫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여 예수의 탄생과 부활,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의 역사가 전개된다.

성지순례편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구역이나 출애굽기 경로, 모세의 사적 등 신앙의 유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문화를 선명한 사진에 생생하게 담았다. 성경사전 편에는 성경전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인명·지명·어휘 등의 표제어 1000여 항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이, 사전을 통해 성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9월중 완간될 가톨릭편 14권 역시 구약, 신약, 성지순례, 그리고 성인전기 등으로 구성, 세계성체대회가 열리는 10월초순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터키의 코냐 동굴교회나 스위스 아인디젤른 성당, 이스라엘 나인성의 프란체스코성당 등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성지의 현장사진도 담기게 된다.

국배판 크기에 각권 192페이지 분량의 이 전집물은 한껏한껏에 신앙의 현장을 담아 신구약의 전 내용을 망라함으로써, 성서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가격은 개신교편 18만원, 가톨릭편 25만원.

▲「체코슬로바키아 단편집」 체코슬로바키아 유네스코 선정 번역 (프랑스 세제르社版)

▲「현대 루마니아 시선집」 (영국 런던 오웬社版)

▲미클로 라드노티(헝가리) 「강요된 행군」

▲야누 코르작(폴란드) 「어린이가 존경을 받을 권리」 「내가 다시 어려질 때」 「계토의 일기」

나무일 뿐인데

.....(생략)

남편의 집은

책의 밀림이다!

어떤 것은 남아빠져 표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심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알팍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다.

.....

어떤 것은 등에 그림이 있다.

마술사로 보이는 남녀의 죽은 얼굴 수염이 덩수룩한 오만한 배불뚝이 사내들, 또는 이미 오래 전에 죽은 남녀의 수척한 뺨 곱이 나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듯한 사진들

남편의 책상은 몸서리쳐지는 서류더미로 온통 파묻혀 있다.

서류더미는 숲속 수목 또는 다른 나무들을 질식시켜 죽이는 키투바나무를 기어오르는 거인처럼 보인다.

.....(생략)

### 「유네스코대표작선집」의 아프리카문학

▲「검은 아프리카의 신성한 문헌들」 체르멘느 데에테클렌 선정, (파리 갈리마르판)

▲「검은 아프리카詩」 랭스턴 휴즈 편(런던 인디애나大출판사판)

▲「아프리카 詩選集」

①「전통 구전문학」

②「成文詩」

W.H. 와이틀리 편 (옥스퍼드 클리렌턴출판사판)

▲마시지 쿠네네(인클로모코 예미니카)

「세월의 노래」(서사시)

「사카 대왕」(서사시)

(작가자신의 漢譯作版)

▲오코트 파비테크

「라위노의 노래」(시집)

▲페울 牧童들의 神秘詩 口傳文學

「관탕」

「삼바 구엘라 디에그니」

위 목록에서 보다시피 황급하지 않으며, 전통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목록들을 선정하고 번역해 가는 것이다.

이중 오코트 파비테크의 詩 「라위노의 노래」는 책을 주제로한 詩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마음으로 일부 옮겨두기로 한다.

남편은 읽기도 많이 한다. 백인들처럼 무엇이든 모조리 읽어치운다. 꼼꼼하게도 그래서 백인에게 지지 않는다. 박식함에 있어서 그러나 독서가 남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백성과 완전 단절되었으니 뿌리없는

## 출판저널

###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